

壬辰倭亂 前後 釜山地域의 社會變化

김 강 식

(동명대 교양학부 교수)

차 례

I. 머리말

II. 향촌지배체제의 확립과 의미

1. 향촌지배체제의 확립

2. 대민통제책의 강화

III. 사회제도의 변화와 의미

1. 성리학 질서의 보급

2. 일본인의 거주와 문제

IV. 맺음말

I. 머리말

임진왜란은 조선시기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전쟁이었다. 때문에 전쟁을 전후하여 조선 사회 내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터이자 최대 피해국이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민족의 일대 수난기였으며,¹⁾ 동시에 사회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²⁾

하지만 전쟁터였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승전도 패전도 아닌 미증유의 국난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문제였다. 그것은 16세기의 변화 속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土族들과 의병의 주력을 구성하여 활동한 민들의 결합으로 가능하였다. 때문에 임진왜란의 극복은 16세기의 사회구조 내부의 활동, 구체적으로는 16세기 在地土族들의 향촌지배체제 속에서 가능하였다.³⁾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도 재지사족 중심으로 향촌사회의 안정과 수습이 가능하였다. 먼저 재지사족들은 난후의 향촌지배체제를 사족 중심으

-
- 1) 조선왕조가 임진왜란 이후에도 지탱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먼저 조선왕조의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체제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중앙이나 지방에서 왕권에 도전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음으로는 宣祖의 왕권에 대한 집착과 성리학에 토대를 둔 봉당정치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왕조가 유지되었다고 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성리학 질서는 오히려 강화되어 나갔다. 국가에서는 대외관계에서 승명의뢰의 강조, 국내에서는 성리학적 가치관과 윤리의 강조를 통해서 국가 체제를 수습·유지하였다.
 - 2)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먼저 조선시기의 사회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중세사회나 근세사회로 보는 입장이 있다. 다음으로 조선시기 자체의 변화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는 입장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보는 입장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임진왜란이 중요한 계기이다.
 - 3) 李泰鎮, 「壬辰倭亂 극복의 社會的 動力-士林의 義兵活動의 基底를 중심으로-」 『韓國史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로 재강화하였지만,4) 국가도 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통해서 향촌사회의 직접적인 지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5)

사실 임진왜란 시기에 가장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당했던 부산지역에서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임진왜란 전후의 사회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대민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제도의 변화와 의미를 통해서 성리학적 질서가 수립되면서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민에 대한 성리학적 질서의 강조와 일본인 거주로 생겨난 풍기문제의 처리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향촌지배체제의 확립과 의미

1. 향촌지배체제의 확립

16세기 사회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이 在地土族의 등장이다. 16세기 이래 계속된 土族의 지주적 성격의 강화, 土禍로 인한 낙향 관료의 증가, 재지사족의 향촌기반 확보는 궁극적으로 16세기 후반 이후 사림정권의 창출 기반이 되었으며, 사림세력의 향촌에서의 재지적 기반은 임진왜란 시기에는 창의·기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6)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사족지배체제의 강화를 통한 향촌사회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였다.7) 사족들은 향촌사회의 장악이 바로

4) 이수진,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5)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1984.

6) 李泰鎭,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세력기반의 확보였기 때문에 향촌통제기구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부산지역이 속한 경상도의 재지사족들이 재지적 기반을 토대로 유대를 가질 수 있었던 향촌지배기구로 교육기관과 유향소를 들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의 역할은 상호 복합적이었다. 우선 거주읍에 설치되었던 鄕校와 각 지역에 보다 많이 설치된 書堂이나 書院을 통해서 사족들은 결합할 수 있었다.⁸⁾ 경상도의 경우 향교는 서원 설립 이후의 조선 중기와 후기에도 여전히 사족들의 향촌지배기구로서 활용되었다고 한다.⁹⁾

하지만 보다 강력한 사회통제와 사족의 결합은 留鄕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실 유향소는 조선 초기 이래 존속했지만 훈척세력들이 이용하면서 파행화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직전에는 재지사족들을 중심으로 훈척세력들에 의해 파행화 된 유향소를 개선하여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는 기구로 재활용하기도 했다.¹⁰⁾ 그런 과정이 鄕射堂의 건립과 鄕規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기구는 임진왜란 시기에는 召募의 과정과 의병의 운용에도 활용되었으며, 전쟁기에는 義兵所라는 통제기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¹¹⁾ 이런 모습은 재지사족들의 향촌지배기구가 전쟁 전후에도 지속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임진왜란 전에 부산지역에는 뚜렷한 재지사족이 형성되지 않았다. 부산지역은 유교적인 교화와 유학의 보급 등 문화적인 면에서는 다른 지방에 비하여 불모지 상태였다. 그것은 부산이 단순히 일본과 가까운 남쪽 변방의 海邑 浦村이라는 이 고장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국가로부터 심한 차별과 영원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7) 정진영, 『조선후기향촌사회사』 한길사, 2000.

8) 향교와 서당을 통한 성리학의 이해 증진과 학문 전수관계를 통해 재지사족이 성장하고 있음을 밝힌 경우가 있다(鄭震英, 「임란 전후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7, 1987).

9) 姜大敏, 「韓國의 鄕校 研究」 경성대출판부, 1992.

10) 裴基憲, 「16世紀 鄕村支配秩序와 留鄕所의 性格」 『大丘史學』 35, 1989.

11) 鄭慶雲, 『孤臺日錄』 권1, 임진 11월 6일; 계사 10월 6일.

그래서 부산지역의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하여도 급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명종 때 宋承緒가 겨우 생원시에 합격한 것이 유일한 사례가 된 것으로 보아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¹²⁾

그러므로 부산지역에서는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仕宦으로 입신출세한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 지역에는 두드러진 양반 사족이 있을 리 없었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다만 농사와 어로에 힘 쓰고 소규모의 상업에 종사하여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쇠잔한 양민들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부산지역에도 鄉權을 장악하여 향촌의 대소사를 주도하고, 민들을 지배한 사회적 계층으로 鄉班이 나타났다.¹³⁾ 이 점은 조선시기에 부산지역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때문에 부산지역의 향반은 다른 지역의 향반과는 달리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 왜냐하면 부산지역에서는 역대로 과거에 급제한 자가 없어 사대부를 배출하지 못하는 양반 없는 고을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지체가 낮은 향반들이 향권을 장악하여 향증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⁴⁾

이러한 모습은 17세기 중엽 현종 때 동래부사가 된 安縝이 동래향교의 文廟 앞에 明倫堂을 중건하고, 尤庵 宋時烈에게 記文을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동래부는 궁벽한 먼 바닷가에 있어 백성으로서 능히 선비가 되는 사람은 매우 적고, 행여 있어도 그 記誦과 文詞를 익힌 것이 또한 다른 여러 고을에 끼일 수가 없다.'¹⁵⁾ 한 데서 알 수 있다.

12) 『사마방목』 명종조; 『동래부지』 科第.

13) 향반이란 원래는 신분이 官人層에 속하는 양반이었으나, 여러 대에 걸쳐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벼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미한 사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동래향청고왕록』 「三鄉任遞任稟目」).

14) 이에 관련된 자료로는 『鄉案』, 『鄉聽先生案合遺錄』, 『鄉財經任錄』, 安樂書院의 『歷代任員錄』 참조.

이처럼 조선시대에 부산지역은 성리학을 익히고 학문을 숭상하는 풍토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산지역에서는 내놓을 만한 선비도 없었으며, 과거 특히 文科에 급제하여 양반 관료가 된 자도 없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土着土族, 즉 鄉班들은 양반 관료로의 입신출세를 단념하고, 오로지 鄉案에 이름을 올려서 儒任과 鄉任을 맡아 향권을 장악하고, 그 이력을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드러내고, 집안을 향중에 과시하였다.¹⁵⁾

이제 부산지역의 향반들의 존재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향안』에 기재된 명단이다. 동래에서 작성된 최초의 향안은 임진왜란 때 창의 기병한 宋依仁, 金廷瑞, 金禹鼎, 朴希根, 金士偉 등 5명의 명단이 등재된 1598년(선조 31)의 『萬曆戊戌案』이다.¹⁷⁾ 부산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직후 향안이 작성되었다. 이후 1695년까지 지속되다가 1738년(영조 14)에 『英祖戊午案』이 작성될 때까지 작성되지 않았다. 전체 10차에 걸쳐 작성된 향안에 등재된 인물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 동래향안 성씨별 입록자수¹⁸⁾

성씨	인원수	성씨	인원수	성씨	인원수
南平文氏	23	淸道金氏	9	月城朴氏	3
竹山朴氏	15	慶州李氏	7	靈山辛氏	2
礪山宋氏	12	寧越辛氏	6	玄風郭氏	2
慶州金氏	12	恩津宋氏	5	海州吳氏	2
東萊鄭氏	11	仁川李氏	5	密陽孫氏	1
江陵金氏	9	南原梁氏	4	梁山李氏	1
本貫 미상의 金·鄭·朴·李·文·宋氏	13	廣州金氏	3	계	145

15) 「東萊府學 명륜당기」.

16)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조선후기 향반사회의 지배구조와 사회이동문제에 대한 시론」 『역사학보』 139, 1993, 123쪽; 이원균, 「조선후기의 동래 향반에 대하여」 부산퇴계학연구원 교양강좌, 2006.

17) 「鄉案萬曆戊戌案」 『萬曆戊戌案』; 「김정서 묘갈명」.

18) 「동래향안」; 문기주 편, 「동래사료」 3, 여강출판사, 1989.

「동래향안」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145명이다. 이들의 성씨는 본관이 나타나 있지 않은 13명을 제외하면, 19개의 성씨이다. 이 가운데 南平文氏, 竹山朴氏, 礪山宋氏, 慶州金氏, 東萊鄭氏 등 5개 성씨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4%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임진왜란 이후 부산지역을 대표한 향반들이다.¹⁹⁾ 이들은 대부분 단종 폐위사건과 같은 중앙정치의 변혁기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부산으로 입향한 가문들이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임진왜란 이후 향안 입록의 중요 근거는 다른 지역과 같이 宣武原從功臣의 후손이 주도하였다.²⁰⁾ 다음으로 江陵金氏, 淸道金氏, 慶州李氏, 寧越辛氏, 恩津宋氏 등 5개 성씨가 24.7%를 점하고 있다. 이들 10개의 성씨가 동래 향반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조선시기에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재지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 다섯 성씨가 부산지역에 거주하게 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남평문씨는 고려 進士 文萃의 후손인데, 문평은 三憂堂 文益點의 손자로서 고려가 멸망하자 동래에 들어와 은거함으로써 그 자손들이 동래에 살게 되었다. 경주김씨는 翰林을 지낸 金秀文의 후손으로 樹隱 金沖漢의 증손인데, 김수문이 1455년(세조 원년)에 동래에서 귀양살이를 함에 따라 그 후손들이 동래에 살게 되었다. 죽산박씨는 忠貞公 朴奇悟의 후손인 朴天樞가 星州에서 옮겨와 살았으므로 그 자손이 동래에 살게 되었는데, 박천추는 임진왜란 때 창의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동래정씨는 고려 때 鄭文道の 후손으로 대대로 동래에 살아온 본관 성씨이다. 여산송씨는 고려 때 元尹을 지낸 宋暉의 후손인 훈련원 參軍을 지낸 宋克明의 자손으로, 송극명이 端宗妃 貞順王后 송씨의 친척이었으므로 화를 피해서 동래에 와서 살았기 때문

19) 이훈상·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헌 자료」 『향도부산』 10, 1993, 123쪽.

20)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칭-조선후기 향반사회의 지배구조와 사회이동문제에 대한 시론」 『역사학보』 139, 1993, 123쪽.

에 그 자손들이 부산지역에 살게 되었다.

한편 향안에 기재된 향반들은 鄉廳의 직임인 鄉任을 맡아 향내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방 실정에 어두운 수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수령의 권한을 견제하기도 하였으며, 향리를 감시·감독하여 賦稅의 올바른 부과와 징수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향임은 상당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었다. 향임의 임원으로는 첫째인 座首와 副任인 別監 2명이 있었다. 그들의 임기는 대체로 2년이었지만, 수령이 교체되면 바뀌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좌수와 별감의 임명은 처음에는 전직 향임들이 圈點制로써 직접 선출하여 수령이 이를 추진하였으나, 뒤에는 권점제를 폐지하고 전직 향임들이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서 수령이 1명을 골라서 임명하는 擬望制로 바뀌었다. 이처럼 향반들은 향임의 임원을 독점적으로 차지·유지하였다.

둘째, 동래향교의 역대 교임의 명단이 실려 있는 『經任錄』의 분석이다.²¹⁾ 『향안』에 이름이 등재된 향반들은 향교의 校任이나 서원의 院任 같은 儒任과 鄉廳의 직임인 鄉任을 맡아 향론을 주도하고 향권을 장악하려 하였다.²²⁾ 우선 향교의 교임으로는 향교를 대표하며, 동시에 전반적인 향교 운영의 책임을 지는 首任인 都有司·校長과 副任으로서 향교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掌議, 校生을 지도하는 교수직인 都訓長과 訓長이 있었다.²³⁾ 이들 교임은 향청·향교·서원의 수임을 역임한 자들로 구성된 堂會에서 천거하면 官長인 동래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기는 대체로 1년이었다. 당회에서 교임을 천거할 때면 향반들은 서로 추천을 받기 위해 父兄과 子姪들이 당회가 열리고 있는 향교에 몰려와서 문제를 일으켜 처벌이 논의되기까지 하였다.²⁴⁾ 이처럼 교임직은 바로 문벌을 유지하는 척도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禮米의

21) 『동래향교지』, 『經任錄』.

22) 정승모, 「향촌사회 지배세력의 형성과 조직화과정」 『동양학』 20, 1990.

23) 『東萊鄉校考往錄』 庚申 6月 13日條.

24) 『東萊鄉校考往錄』 壬申 5月 12日條.

납부와 같은 일도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²⁵⁾

동래향교의 『經任錄』은 1634년(인조 12)부터 작성되었으나, 고종 9년 이전까지는 빠진 것이 많다. 『경임록』에 의거하여 1910년까지 동래향교의 교임 중에서 수임인 도유사·교장, 부임인 장의, 교수적인 도훈장·훈장을 지낸 인물들을 성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동래향교 『經任錄』의 성씨별 분석²⁶⁾

성 씨	도유사 교장수	장의수	도훈장 훈장수	성 씨	도유사 교장수	장의수	도훈장 훈장수
南平文氏	24	23	11	迎日鄭氏	1	1	
慶州金氏	15	14	14	仁川李氏	1		
東萊鄭氏	11	12	5	車城李氏	1	1	
竹山朴氏	7	8	4	江陵金氏	1	4	
玄風郭氏	7	9	6	延安李氏		2	
月城朴氏	5	14	1	潁陽千氏		1	
慶州孫氏	5	2		達城徐氏		1	
礪山宋氏	4	8	4	潭陽田氏		1	
密城朴氏	4	4		密陽朴氏		3	
錦山金氏	3	4		昌原金氏		1	
慶州李氏	2	2		中和楊氏		1	
清道金氏	2	2	4	廣州金氏			1
靈山辛氏	2	3		本貫未詳	1	20	
金海金氏	2						
寧越辛氏	1	5		합계	99	146	50

위의 <표 2>에 의하면 향교의 首任인 도유사·교장을 지낸 사람은 모두 99명이다. 이 가운데 본관이 밝혀져 있지 않은 1명을 제외하

25) 『東萊鄉校考往錄』 壬申 7月 20日 追節目.

26) 『동래향교지』 「經任錄」.

면, 모두 19개의 성씨에 속한다. 특히 남평문씨, 경주김씨, 동래정씨, 죽산박씨, 현풍곽씨 등 5개 성씨가 6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副任인 掌議는 전체 146명 중에서 본관 미상의 20명을 제외하면, 126명이 24개 성씨에 속한다. 이 가운데 남평문씨, 월성박씨, 경주김씨, 동래정씨, 현풍곽씨 등 5개 성씨가 49.3%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직인 도훈장과 훈장은 9개 성씨에서 50명을 배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경주김씨와 남평문씨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번 향교의 임원이 된 집안이 지속성을 가지면서 임원인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동래향교지』에 수록된 『鄉廳先生案拾遺錄』의 분석이다. 동래 향반들은 鄉會를 구성하였다. 향회에는 회장격인 鄉首와 鄉公事員을 두었다. 향수는 과거에 좌수를 지낸 자들이 번갈아 맡는 것이 관례였다. 향회는 향반 사족들이 수령의 지나친 횡포와 향리의 농간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면서 민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향반들의 실질적 최고 기구였다.

동래 향청의 향임과 향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鄉廳先生案』은 보존이 부실하여 제대로 전해오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유실된 것을 대충 수습하여 엮어 놓은 것이 『鄉廳先生案拾遺錄』이다. 이 습유록은 1608년(선조 41)에서 고종 말년까지 수록되어 있지만, 중간에 빠진 것이 많다.²⁷⁾ 하지만 임진왜란 직후에 부산지역에서도 향청이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래향교지』에 수록된 『鄉廳先生案拾遺錄』에 보이는 향임인 좌수와 별감, 향회의 향수와 향공사원을 합쳐서 성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숙종 45년에서 영조 10년, 영조 49년에서 정조 11년, 순조 29년에서 헌종 5년, 철종 11년에서 고종 6년(1869), 광무 5년(1905)에서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는 단순히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임명 연대와 직임이 적혀 있지 않다.

< 표 3 > 향청 · 향회 임원 성씨별 인원수²⁸⁾

성씨	인원수	성씨	인원수	성씨	인원수
南平文氏	59	淸道金氏	8	廣州金氏	1
慶州金氏	51	玄風郭氏	7	昌原黃氏	1
竹山朴氏	23	仁川李氏	6	海州吳氏	1
礪山宋氏	22	迎日鄭氏	6	中和楊氏	1
慶州李氏	16	慶州孫氏	5	慶州崔氏	1
月城朴氏	15	恩津宋氏	4	密陽孫氏	1
東萊鄭氏	14	靈山辛氏	3	梁山李氏	1
寧越辛氏	14	密陽朴氏	2	本貫未詳	22
江陵金氏	8	錦山金氏	2	합계	294

위의 <표 3>에 의하면 향청과 향회의 수임과 부임을 지낸 사람은 294명이다. 이 가운데 본관이 밝혀져 있지 않은 22명을 제외하면, 모두 25개 성씨다. 이 가운데서 남평문씨와 경주김씨가 전체의 37.0%를 차지하였고, 죽산박씨와 여산송씨, 경주이씨 등 3개 씨족은 전체의 20.7%를 차지하였다. 이 자료에서도 부산의 향반 다섯 성씨가 임진왜란 이후 부산지역의 사회 주도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東萊鄉校誌』에 실려 있는 안락서원 『역대임원록』의 분석이다. 동래 향반들은 부산지역의 유일한 서원인 安樂書院의 원임을 맡아 서원에 출입하는 것을 사족으로서의 영예로 여겼으며, 동시에 향중에서 자신의 지위 과시, 가문을 남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에 서원의 성격이기도 하다.

『東萊鄉校誌』에 실려 있는 안락서원의 『역대임원록』에는

28) 『동래향교지』 「鄉廳先生案拾遺錄」.

1666년(현종 7)부터 원임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200년간은 기록이 부실하여 참고가 되지 않고, 고종 5년부터 최근까지는 빠짐없이 잘 기록되어 있다. 『역대임원록』에 의거하여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의 안락서원 원임 중에서 院長을 지낸 인물을 성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안락서원의 원장을 지낸 사람은 모두 77명이다. 이 가운데 본관이 밝혀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18개 성씨에 속한다. 특히 경주김씨 25명, 남평문씨 18명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였다. 죽산박씨 6, 동래정씨 5, 경주손씨 5명으로 전체의 20.8%였다. 月城朴氏 3명, 淸道金氏 2명, 仁川李氏 密陽朴氏 靈山辛氏, 江陵金氏, 梁山李氏, 錦山金氏, 海州吳氏, 慶州李氏, 密陽孫氏, 寧越辛氏, 本貫未詳이 각각 1명으로 전체 76명이다. 이런 사실에서도 안락서원의 원장직임이 지속성을 가지면서 제한된 향반가문이 독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산지역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효종 연간에 서원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안에 등재된 인물을 비롯하여 향교의 교임, 서원의 원임, 향청의 향임은 각각 50% 이상이 부산지역의 주요 향반인 다섯 성씨 출신이었다.²⁹⁾ 이에 남평문씨, 경주김씨, 죽산박씨, 동래정씨, 여산송씨 등 5개 성씨는 임진왜란 이후 부산지역 향반을 대표하는 성씨라고 할 수 있다. 이들 5개 성씨들은 임진왜란 이후 수백 연간에 걸쳐 동래의 향교와 서원의 직임인 儒任과 향청의 직임인 鄕任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향권을 장악하여 향론을 주도하면서 민들을 지배하였다. 이들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향촌세력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이후 향안 작성의 주도, 향청의 정비, 향회의 구성을 통해서 향론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향교나 서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9)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동래현.

2. 대민통제책의 강화

조선시기에 대민지배책으로 주목되는 것은 군현제도와 부세제도였다. 그런데 이 제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재지사족의 자치조직인 향약이 주목되었다.³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향약은 16세기 초까지는 송나라의 呂氏鄉約이 보급되었지만, 16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향약이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향약은 송나라 향약의 규약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전통적인 契 조직의 취지를 흡수하여 경제적 상부상조를 강조하고, 三綱·五倫의 덕목 중에서 孝에 관한 덕목을 으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향약의 시행 목적이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의 안정과 농촌경제의 안정에 우선하였음을 의미한다.³¹⁾

임진왜란 전후 경상도에서 실시된 향약류를 통해서 재지사족에 의한 향촌지배기구가 광범한 지역에서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의 방향은 재지사족의 결속과 하층민의 지배에 있었다. 특히 하층민에 대한 노동력의 확보는 사재지사족에게 중요하였다. 이에 재지사족들은 수탈과 불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하층민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는데,³²⁾ 그것이 향약류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향약류의 시행에서 주목할 점은 하층민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患難相恤을 강

30)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構造와 性格」, 『震檀學報』 58 1984.

31) 金武鎭, 「조선중기 士族層의 동향과 鄉約의 성격」, 『韓國史研究』 55 1986 .

32)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構造와 性格」, 『震檀學報』 58 1984.

조한 조선 향약의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민의 유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³³⁾

한편 향약류의 시행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 초기 이래 생활기반 속에서 존속하고 있던 村契類 등 基層民의 조직이 土族契나 鄉村契의 하부구조로 편입되었지만,³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³⁵⁾ 즉 香徒나 두레 등의 형태로 향촌사회의 하층민 조직으로 존속하였다. 이런 조직들이 향약의 시행과 함께 사족 상층부의 조직과 결합하는 형태로 향촌사회의 조직은 정비되었다. 특히 하층민의 성장을 전제로 한 洞約類의 광범위한 존재는³⁶⁾ 임진왜란 시기에는 鄉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주목된다.³⁷⁾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高坪洞契洞契의 규약에 復讐義兵이란 조목이³⁸⁾ 첨가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쟁을 거치면서 성장한 하층민과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향약의 시행은 대민지배를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었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33) 吳世昌 편저, 『鄉約資料集成』, 영남대 출판부, 1989와 각 의명장의 문집 참조

34)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構造와 性格』 『震檀學報』 58, 1984.

35) 각 고을마다 '鄉村結契'로 표현되듯이 洞契는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선조실록』 권7, 6년 6월 갑자).

36) 鄭震英, 「16世紀 安東地方의 洞契」 『嶠南史學』 창간호, 1985; 金武鎭, 「조선중기 土族層의 동향과 鄉約의 성격」 『韓國史研究』 55, 1986; 朴京夏, 「倭亂 直後の 鄉約에 대한 研究-高坪洞 洞契를 중심으로-」 『中大史論』 5, 1987; 宋俊浩, 「晋州에서 재확인 되는 朝鮮朝 社會의 持續性-壬亂을 겪은 晋州社會의 序言으로서-」 『徐義必先生 華甲紀念論文集』 1988 참조.

37) 조선 중기의 민의 성장이나 군역제의 변화 과정에서 賤民 정책의 새로운 소산으로서 東伍軍의 성립에 주목하고, 그것이 面里制 아래서 村마다 소부대를 이루고 있어 香徒契와 같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尹用出, 「壬辰倭亂 시기 軍役制의 동요와 개편」 『釜大史學』 13, 1989).

38) 『藥圃先生文集』 권3, 高坪洞契序. “高坪洞契 更定約之序 洞契約條 勤勉條 盡忠事君 至誠事親 忘身殉國 倡義復讐”

의 향약은 관주도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³⁹⁾ 그것은 부세제도의 시행 등에서 국가가 사족을 배제하고 민을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향교에서 향약을 주관하였다. 향약은 처음에는 유림이 자치적으로 시행하여 鄉規的이고 族規的인 성격을 지녔으나, 17세기 이후 하층민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上人條約인 過失相規 외에 더하여 德業相勸, 患難相恤, 禮俗相交를 덕목으로 하는 下人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洞約的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⁴⁰⁾ 부산지역에서도 임진왜란 이후 향교를 중심으로 향약이 조직되어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도덕적 질서를 바로잡고 아울러 미풍양속을 진작하는 교화를 시행하였다. 이런 모습은 재지사족의 독자적인 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더욱 쉽게 자리잡아 나갔다. 이런 모습은 향약 시행이 재지사족이 주도한 모습과 구별되는 부산지역의 특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임진왜란 이후 전쟁으로 무너진 향촌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향약의 시행을 주목하였다. 그런 모습은 李鼎龜가 향약을 諺書로 되풀이한 뒤 경기의 坊曲과 주현의 향리에 효유하면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흐트러진 풍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⁴¹⁾ 주장된 데서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는 재지사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민들을 국가가 직접 지배함으로써 수취체제의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에 임진왜란 이후 수령향약의 시행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부산지역에서도 임진왜란 이후 구체적인 향약 시행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효종 때 부사 李馥이 부임하고 나서였다. 그런데

39) 鄭震英, 「16世紀 安東地方의 洞契」 『嶺南史學』 창간호, 1985; 金武鎭, 「조선중기 士族層의 동향과 鄉約의 성격」 『韓國史研究』 55, 1986.

40) 朴京夏, 「倭亂 直後の 鄉約에 대한 研究-高坪洞 洞契를 중심으로-」 『中大史論』 5, 1987.

41) 『인조실록』 권6, 2년 5월 16일.

그것은 경상도의 道臣이 鄉約法을 효종 10년 戊戌年에 반포하고 난 후였다.⁴²⁾

丙辰年 가을 내가 이 동래고을로 와서 지킬 때에 개연히 지난날의 향약에 쓰인 訓辭에 뜻을 두어 고을의 풍속을 살펴보니, 그 땅이 서울로부터 가장 멀어 비록 野鄙한 풍습이 없지는 않았으나, 역시 모두 질박하고 정직하며 語訥하여 함께 각기 선을 권할 만하였다. 이에 鄉廳의 임무 사항을 맡은 사람과 가까운 여러 父老들을 소집하여 이르기를, ‘향약은 곧 좋은 법인데, 어찌 행하지 않으시오. 더구나 이 백성은 三代의 바른 도리를 행하는 자들이요, 5帝 3王이 일찍이 백성을 바꾸어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향약을 전에 그대로 행하여 오다가 중도에 폐지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아깝게 여겼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극한 가르침인데 감히 중수하여 봉행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향약의 조문대로 都約正 副約正을 정하여 시행하고 강구하여 約正의 기간을 정할 만하니, 父老들이 모두 말하기를, ‘오늘에 이 법이 좋은 것을 곧 알겠습니다. 처음 행하는 사람이 혹시 거부할 수도 있으나, 오래 되면 怡然하여 아버이를 아끼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따라 改過遷善하는 기풍이 저절로 이루어져 三綱五倫의 큰 도리가 거의 어둡다가 장차 다시 밝아질 것이니, 이는 각자가 영구히 선행을 권하는 효시가 되었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듣고 기뻐하여 이르기를, ‘역시 좋지 않은가. 아아! 우리 父老들은 어찌 함께 힘쓰지 않으리오. 父老들만 서로 힘쓸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을 가르치고 경계하여 이를 시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이것이 또 나의 바라던 바이며, 고을로서도 다행이겠노라.’ 父老들이 모두 말하기를, ‘삼가 명령을 들겠습니다.’ 드디어 서문을 써서 주는 것이다.⁴³⁾

이 자료에서 부산지역에도 향약이 임진왜란 이전에 시행되다 중도에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향청이 존재하고 있어 그 임

42) 『조선시대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 「東萊鄉約重修記」 沙川洞案.

43) 낙동문화원, 『東萊鄉約重修記』 「沙川洞案」, 龍集 戊午 孟冬 10月, 行府使 星山 後人 李馥 記.

원들과 수령이 향약시행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촌면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향약이 시행되었다. 1676~1679년에 동래부사로 제직한 李馥이 기록한 「동래향약중수기」에 나타난다. 이때 참여한 인사의 명단인 동안에는 1678년부터 1764년까지 131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⁴⁴⁾

아울러 임진왜란 이후 시행되는 향약은 관주도의 향약 시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禮曹가 학교를 권장하는 조목을 가지고 입계할 때에 여섯 번째로 지적된 것이 향약의 시행이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呂氏鄉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백성들의 풍습이 날이 갈수록 더 투박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約長이라고 불리는 자가 모두 고을의 비천한 부류이고, 官家의 징발과 독촉에 관한 일이 이들에게 맡겨져 있어 賤役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고을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풍속을 규찰하고 바로잡는 일을 전임하게 하자는 것이었다.⁴⁵⁾ 이것은 기존의 재지사족 주도의 향약 시행을 관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향약에서는 덕목으로 孝悌 忠臣의 도리를 가장 중시하였다. 즉 향약의 여러 조목을 다시 행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孝友 敬順의 도리에 가장 절실한 것을 사목으로 정하여 감사에게 선포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감사가 수령을 엄하게 경계하고, 수령은 父老들을 모아놓고 되풀이 경계하면 자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⁴⁶⁾

이후 향약의 구체적인 시행에서 禮曹가 신칙해 節目을 가려 봉행할 때 대개 孝悌를 권장하여 不孝와 不悌를 懲治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며 향리에서 서로 싸우고

44) 강대민, 「동래부 남촌면 고문서 해제」 『항도부산』 11, 1994.

45) 『인조실록』 권30, 12년 10월 22일.

46) 『인조실록』 권30, 12년 10월 29일.

衣食을 지나치게 사치하게 하는 풍속 등에 대해서는 대략 향약의 옛 규례를 모방하여 영구히 준행하는 법식을 삼도록 하자고 하였다.⁴⁷⁾ 이처럼 전국적으로 수령향약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덕목으로는 과실상규 외에 환난상휼이 중시되었다.

이제 조선시기에 부산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된 『鄉約廳節目』 「沙川洞約廳節目」을 통해서 향약 시행의 모습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천동약의 시행은 동래 고을은 남방 변경에 자리해 상인과 역관들이 때를 지어 사는 곳으로 진귀한 외국 물화가 함께 모이는 곳으로 백성들이 오직 이익만 추구하며, 항상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다투며, 하늘이 펴신 人倫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당시 시행의 주체는 守令이었다. 아울러 향약 시행의 기본은 粟谷이 지은 海州鄉約이었다.⁴⁸⁾ 그리고 향약의 기본 덕목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었는데, 이는 율곡이 지은 향약에도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약을 따르고 있다. 또 시행의 범위를 보면 전형적인 동약이었다.

구체적으로 『鄉約廳節目』 「沙川洞約廳節目」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⁴⁹⁾ 여기에는 향약의 기본규약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이 언급되고 나서 구체적인 조항이 나열되어 있다.

1. 兩每月마다 利息을 기르는 제도는 鍊士廳節目과 같다.

1.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하며, 친족과 화목하는 일은 都約正 副約正이 자세히 모두 찾고 물어 실제에 따라 보고하여 班에서 상을 상신하면, 인심이古朴하지 못하여 혹시 거짓으로 이름을 꾸미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아무나 상을 받아 상을 더럽히는 일. 이 한 가지는 가장 마땅하게 자세히 살펴 거짓이 끼지 않게 할 것.

47) 『효종실록』 권2, 즉위년 10월 23일.

48) 『鄉約廳節目』 「沙川洞約廳節目」.

49) 『조선시대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 낙동문화원, 1999. 여기에는 조선후기 부산 지역의 사회사 관련 절목류가 실려 있다.

1. 이 고을 백성과 선비들이 어버이 병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쏟아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는 일이 많다. 그러나 약초를 삼고 朱砂를 가루로 내어 어버이에 드리는 것이 효자의 떳떳한 도리이다. 팔다리나 몸을 헐어 상처 내어 봉양을 하는 것은 옛날 현인도 잘못된 일이다. 韓子에 鄴人이 朱子를 대하여 허벅지 살을 베는 일을 경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조정에서 경계하여 금지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특이하다고 포상하니 잘못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韓子가 일컫는 바 ‘兪泰을 바라는 자는 시장에서 腰斬을 해야 한다.’ 하였다. 역시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대개 그 요행을 바라고 몸을 훼손하는 자는 죄가 없을 수 없으나, 그것은 반드시 부모를 아끼는 마음의 한 가지 행동이라. 그것은 불교 신도들이 머리를 태우고,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팔을 끊고, 몸을 자르는 것이 대웅전에 복을 비는 것일지라도 부처에게 아첨하여 몸을 상하게 한 자를 아직까지 형벌을 준 일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어버이를 아껴 살 자를 자를 어찌 가벼이 大罪를 가하겠는가. 나는 이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건대 고을의 어른들은 만약 사람을 만나거든 즉시 불러 옛 성인들의 훈계를 가르쳐 몸이나 털과 살갓이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훼손할 수 없게 할 것이오. 효자는 두터운 상으로 그 효도를 장려할 뿐이며, 다시 그 집이나 마을에 旌閭하지 않는 것이 得策이리라. 風化의 자루를 전 사람은 미리 이 뜻을 익혀야 하므로, 조약을 갖추어 논란한 것이다.

1. 7개 면에서 각기 都約長 1명, 副約長 1명을 뽑아 그 면내에서 일어난 모든 수재, 화재, 도둑, 죽음, 喪事의 일들을 直月이 都約正과 副約正에게 알리고, 都約正과 副約正은 관청에 알리며, 관청에서는 매우 가난한 자를 가려 약간의 물품을 지급할 것.

1. 혼사에 때를 놓친 자는 直月이 都約正과 副約正에게 알리고, 관청에 알려 물자를 지급할 것.

1. 관례, 혼례, 상례, 제례는 가장 큰 인간대사이다. 관례에 세 번 옷을 입히는 三加禮, 신랑이 몸소 신부를 맞이하는 혼례, 선조를 제사 모시는 일은 朱子家禮에 의하여 행하게 한다. 고을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관례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수령)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즉시 深衣와 福巾을 지어주고, 인사하고 양보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를 가르쳐 그것을 오직 힘써 행하는 자를 선발하여, 선비나 평민들을 그 집에 모이게 하여 둘러보는 사람이 많게 하여 감탄하여 마지않게 하면, 변방 사람들이 능히 古禮가 중대함을 알 것이며, 관청의 명령이 이처럼 특수하다는 것도 알 것

이니, 기쁜 일이다. 예를 마치면 옷과 儒巾을 향교에 두고, 뒤에 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아 이어 행하도록 할 것.

1. 鄉飲酒禮와 鄉射禮는 禮書에 상세히 말했으니, 참고하여 여기에 근거하여 행할 것.

1. 젊은이가 어른을 업신여기거나 천한 사람이 귀인을 능멸하는 무리는 한결같이 文成公 향약에서나 본 향약에서 성도하여 회초리를 칠 것이며, 반성하여 고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할 것

1. 都約正이나 副約正이 만약 온당치 못한 사람이면, 혹시 관가의 명령을 빙자하여 위협이나 핍박을 행하는 폐단이 있으니, 官長들은 특별히 살펴 실정을 조사하여 금지시킬 것.

1. 흠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사람은 천하에 공색한 백성이니, 성인들의 정치에서는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 仁愛를 베풀었는지라. 官長된 사람은 마땅히 仁愛로운 마음을 가져 사랑으로 어루만져 설자리를 잃게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향약을 설치하는 本意인 것이다.

1. 향약 가운데 쌀이나 돈 거두는 監色들이 혹시 부실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감색들에게 그 물품을 변상하게 함.

1. 7개 면마다 각기 訓長 한 사람씩을 두어 면내 생도들을 가르치게 하며, 재주나 학식이 점점 진보하는 자는 많은 상을 내리고, 훈장도 역시 상을 내릴 것.

1. 이곳 백성이나 선비들이 제사나 사철 성묘 절차에 뜻을 두는 사람이 적으며, 역시 풍습이 서울과 달라 追遠報本과 原始反終의 뜻에 매우 틀어져서 내가 公文을 발표하여 깨우치기 한두 번이 아니나, 그 효력을 보지 못했으니, 고치기를 도모하여 관청에서 다시 힘써 경계하고 독책할 것.

1. 혼인과 상례에 물자를 주는 일은 양반과 상농을 막론하고 함께 그 가난한 자를 뽑아 고르게 베풀 것이며, 양반은 우대하고 상농에게는 인색하면 옛 제도의 본의를 밝히지 못할 것.

1. 아전, 노비, 군노, 사령 등은 죽음과 當喪에 역시 물자를 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각기 四廳에 본전을 주어 이식을 늘릴 것.

1. 매년 겨울 끝에 관가에서 약소한 쌀과 돈을 향약계에 주어 그 경비를 보조할 것이니, 백성들은 양반과 상농을 막론하고 각기 쌀 2되를 내어 향약계에 납부하되, 혼자 살며 가난한 사람은 거두어들이지 말 것.

1. 민가에 혹시 화재를 입는 자가 있으면, 사람을 시켜 상태를 살펴 헤아려 몇 섬을 줄 것이며, 같은 마을에서도 역시 약간씩 거두어 재물을

채워 줄 것.

1. 서민 중에 만약 병이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각각 일꾼을 내어 즉시 밭 갈고 논 매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할 것.

1. 봄철과 가을철에 향약을 강론할 때에 매양粟谷의 향약문과 내가 기록한 향약문을 한 번씩 두루 향약계에서 읽게 하여 모두 듣게 하고, 만약 글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언문으로나 입으로 말해 줄 것.

1. 都約正과 副約正이 각자의 사람들 혼례나 상례에 혹시 사사로운 청탁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실재를 관가에 보고하지 않는 자는 관가에서 엄중히 경계하고 문책할 것.⁵⁰⁾

이처럼 沙川洞約廳節目은 21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환난 상휼에 해당되는 조목이 16개 조항으로 대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향약은 동을 단위로 시행된 동약이었으며,⁵¹⁾ 시행의 주체는 관주도의 수령 향약의 성격이었다. 여기에 고을의 주요 성씨가 절목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⁵²⁾ 그리고 시행을 위해서 향약의 임원으로 都約正과 副約正을 두었다. 아울러 참고가 된 향약은 율곡의 향약뿐이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서인들이 정국을 주도한 흐름을 반영한다고 보아진다.

Ⅲ. 사회제도의 변화와 의미

1. 성리학 질서의 보급

조선은 성리학의 이념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한

50) 崇禎 紀元後 97年 甲辰 朴某 등이 節目을 지음. 直月 朴亭漢, 副約正 李命耆, 都約正 金鼎學.

51) 「洞案」 乾隆 17年 壬申 6月.

52) 崇禎 2年 己巳 2月 19日 「沙川面洞中座目」.

왕조였다. 때문에 성리학의 보급과 가치의 시행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동국삼강행실도』의 보급 등을 주도하였다.⁵³⁾ 아울러 사회 규범을 성리학적인 질서로 바꾸어 나갔다.⁵⁴⁾ 그러나 四禮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임진왜란 이후 정착되어 나갔다. 이런 모습을 부산 지역의 사회교육기관과 제향공간의 건립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이다. 서당 교육을⁵⁵⁾ 받은 15~16살의 소년들이 입학하는 향교가 있었다.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러 유교문화의 확산과 심화를 목표로 하여 一邑一校로 설립되었던 향교는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지방의 백성을 교화하는 교화기관이었으며, 국가 운용에 필요한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향교는 공적인 교육제도로써 각 지방에 설립된 것이지만, 교육적인 이상과 풍속을 전파하는 문화의 거점으로 향촌의 사회기구로서 기능한 측면이 강하였다.

부산지역에는 동래부와 기장현에 각각 있었다. 향교에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儒賢을 배향하는 大聖殿과 학업을 강 의하는 명륜당을 비롯하여 교생들이 기거하는 동재와 서재가 있었다. 이는 중앙의 성균관을 축소해 놓은 구조였다. 이제 성리학적 질서의 보급이란 측면에서 향교의 기능과 역할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향교중시를 단적으로 보

53) 정홍준, 「임진왜란 직전 통치체제의 정비과정」 『규장각』 9, 1988.

54) 4례 가운데 친영례, 장자상속, 3년상 등이 자리잡아 나갔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른 논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55) 조선시대에 사실 초등교육기관으로 어린 학동들을 가르친 곳은 서당이였다. 동래부에는 1732년 동래부사 鄭彦燮이 세운 時述齋가 대표적이였다. 그 이전에도 서당이 존재했을 것이다.

여주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향교의 문묘종사는 조선 건국 후에 공자 이하 중국의 유현과 설총, 최치원, 안향이 모셔져 있다가 중종 12년 이후 정몽주가 모셔지고, 광해군 2년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이 모셔졌다. 이는 전국적인 문묘종사의 추이를 보여 주는 것이며, 성리학의 보급·심화과정을 뜻한다.⁵⁶⁾

동래향교에는 종6품의 교수 1인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교수나 훈도관 대신 일향의 師長이 될 만한 지방의 인물을 관에서 교임으로 뽑아 향교의 강학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동래향교의 경우 正祖 갑진년(1784)에 예조로부터 특별히 인망 있는 인사를 골라 교임에 차출하여 교도하는 책임을 맡기고 경내의 유생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독서하고 旬朔으로 講製하여 흥기의 실효를 작성하도록 했다.⁵⁷⁾ 이런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향반들은 교임직을 장악하여 지역사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향교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學田 7결이 지급되었다.⁵⁸⁾ 이런 모습은 국가가 향교를 중시하는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東萊府事例』에 의하면 18세기 후반 동래향교가 소유한 전지는 5결 63부 9속이라 하였는데, 이는 復戶結의 형태였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이르면 학전에는 전세는 없었으나 대동세는 납부하였다.

이와 함께 동래향교의 경우 『府使 李文源 上疏草』를 살펴보면 향교 전직 70명, 재직 11명의 校保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보인이 낸 納錢, 翻錢의 가격은 2냥으로 되어 있으나, 이외에도 현물을 납부하기도 하고 또는 땀감을 부담하거나 수직이나 사환의 일을

56) 김용곤, 『조선전기 도학정치사상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57) 『東萊鄉校考往錄』 경신 6월 10일조.

58) 『경국대전』 권2, 호전 학전조.

하거나 원장의 보수를 하는 등 향교에 일정한 노역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향교는 유지를 위하여 여러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특혜를 보고 있었다.

향교의 교생들은 교관으로부터 경서와 시문을 배웠는데, 교과서로는 『小學』 『書經』 『三綱行實』 등의 초학 교재를 비롯하여 『四書五經』 『性理大典』 『近思錄』 등의 朱子書, 『通鑑』 『宋元節要』 등의 史書, 『文選』 『楚辭』 『柳文』 『韓文』 『古文眞寶』 등의 文學書가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교 도덕규범의 입문서이고 성균관 입학시험과 생원시의 예비심사 과목인 『小學』이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다음으로 『孝經』 『四書三經』이 중요한 교재였다. 이러한 교재는 조선조 전반을 통하여 변화가 없다.⁵⁹⁾ 향교의 교과목을 통해서 조선 시기에 향교의 역할과 기능이 성리학의 보급과 생활윤리의 보급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부산지방에 있었던 유일한 관학으로서 동래향교는 읍성의 동쪽에서 2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으므로 1605년(선조 38)에 동래부사 洪遵이 중건하였다. 이처럼 부산지역에서도 임진왜란 이후 향교가 중건되었다. 이것은 성리학 질서의 수립과 보급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곳은 지세가 좋지 않아 뒤쪽 언덕에 쌓은 석축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유생들의 疏請에 따라 1704년(숙종 30)에 부의 동쪽 수백 보 거리에 있는 官奴山 밑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1813년(순조 13)에 다시 서성 밖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그러나 향교는 조선중기 이후에 서원이 건립되면서 차츰 쇠퇴하여 영조 연간에 교수의 직제가 폐지되면서⁶⁰⁾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59) 姜大敏, 『韓國의 鄕校研究』 경성대출판부, 1992 ;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향교의 운영과 직제 등에 관한 부분은 두 연구를 참조하였음.

상실하였다. 동래의 경우도 교생이 218명에 이르고 있었는데,⁶¹⁾ 이 규모는 수용의 한도를 넘은 것이었다. 이 시기의 향교의 교생은 명목상 학생일 뿐이며, 실제로는 軍役을 모면하는 수단으로서 교생 신분을 가졌던 것이다.⁶²⁾ 때문에 이 시기에 향교에는 都有司, 掌議, 齋任 등 형식상의 임원만 있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문묘에 釋奠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 주된 일과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와서 향교가 피폐하여 교육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향교의 고유의 기능인 春秋의 釋奠과 朔望의 焚香을 통한 사회 교화적인 기능만은 계속 유지되었다. 특히 釋奠은 성리학의 이념을 온존하면서 보급한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 행사에 회동한 사람들이 一鄉의 公論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었던 것이다. 석전에 會集한 유림은 향교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의 중요 문제를 거론하였고 공론을 주도하였다. 향교의 釋奠祭는 단순한 享祀의 의미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에 있어서 향론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행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또 향촌에 있어 美風良俗을 진작시킬 방법으로 향교에 80이상의 노인을 초대하여, 養老禮를 통하여 鄉飲之禮(鄉飲酒禮)를 베풀고, 이 자리에서 선악의 褒貶에 대한 논의를 하여, 공론을 조성함으로써 향교가 향촌사회에서 禮敎의 本山이 되었던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임진왜란에 상하의 민이 合力하여 倭賊에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에 이러한 교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 동래의 향교, 향청, 안락서원의 세 곳이 서로 융화하고 협력하여 향약과 鄉飲酒禮와 鄉射之禮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⁶³⁾ 물론 향음주례 등은

60) 『속대전』 권8, 예전 생도조

61) 『동래부지』 학교.

62) 김용덕, 『한국제도사연구』 제2부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83, 210쪽.

63) 『周禮』 「地官鄉大夫」條; 『儀禮』 「鄉飲酒義」條; 『國朝五禮儀』 .

이전부터 시행되다가 이때 더욱 강조·시행되었다.

부산지역에서는 英祖(1751) 연간에 행한 향음주례가 『東萊鄉廳考往錄』에 전한다.⁶⁴⁾ 鄉射之禮는 呂氏鄉約의 보급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소멸되었다. 또 향교, 향청, 안락서원 등의 원로가 모여 향회를 구성하고 향중의 일을 향사당에서 의논하면서 이곳에서 習射의 의식을 가졌다.

둘째, 부산지역에 있었던 서원으로는 동래의 안락서원을 들 수 있다. 안락서원은 1605년(선조 38)에 동래부사 尹暄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충렬공 송상현을 받들기 위하여 읍성의 남문 안에 송공사를 세웠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 뒷날 1624년(인조 2)에 선위사 李敏永의 청에 의하여 충렬사의 사액이 있자 부산첨사 충장공 정발을 함께 모셨다. 그 후 1652년(효종 3)에는 동래부사 尹文學가 송상현의 학행과 충절이 후학의 사표가 되므로 그의 학행과 충절을 높이고 선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여 충렬사를 내산 밑 안락리에 옮기고, 강당과 동재 서재를 지어 안락서원이라 하였다.

그 후 1709년(숙종 35)에는 동래부사 權以鎭이 송상현과 정발이 순절할 때 함께 사절한 여러 사람들을 같이 모시기 위해 읍성 안에 있는 충렬사의 옛터에 별사를 세우고 정부에 알린 후 양산군수 조영규, 동래교수 노개방, 유생 문덕겸 및 비장 송봉수와 김희수, 겸인 신여로, 향리 송백, 부민 김상 등을 모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1735년(영조 11)에 경상감사 閔應洙의 계청으로 그 이듬해에 별사를 없애고, 여기에 모신 여러 사람들을 안락서원의 충렬사에 함께 모셨다. 동시에 임진왜란 때 순절한 다대첨사 윤홍신을 다시 모시고, 또한 임진왜란을 당하여 부군과 운명을 같이 한 송상현의 첩 김섬과 정발의 첩 애향을 충렬사의 동문 밖에 별도로 각을 지어 세상에 널리 알려

64) 『동래향청고왕록』 향음주례.

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안락서원은 임진왜란 때의 충신 열사들을 모셨기 때문에 뒷날 흥선대원군이 서원의 폐단을 통감하고 철폐를 단행했을 때도 헐리지 않았다.⁶⁵⁾ 이처럼 부산지역에 안락서원이 건립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충효를 강조하는 국가적 차원의 성리학 적 질서 수립과 강조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셋째, 제단과 사묘의 건립이다. 성리학 질서가 중시되면서 국가 제례도 정비하고, 성리학적 가치를 기려 나갔다. 조선시기에 국가질서가 수립되면서 기존의 陰祀 대신 성리학적 제례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조선시기의 부산지역에는 陰祀를 대신하여 동래현의 오른쪽인 사직동에 사직단이 설치되고, 현의 동쪽 2리에 성황사, 현의 북쪽에 厲壇, 絶影島神祠, 毛等邊神祠, 古智島神祠를 비롯한 산천단이 설치되었다.⁶⁶⁾ 이를 통하여 성리학에 입각한 제례가 확립되고 보급되어 나갔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 충렬사 농주산전망제단 송공단 정공단 유공단 의용단 신무단 만공단 등 많은 사묘와 제단이 부산지역에 세워졌다. 그 중에서도 사직단 문묘 성황사 여단은 이미 조선왕조의 전기 이래로 지방의 각 군현에 빠짐 없이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의 부산을 관할하고 있던 동래부에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 의미는 국가의 성리학 질서의 보급과 강조에 있었다.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직단은 백성들이 땅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고 곡식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므로 이를 감사한다는 뜻에서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기 위해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원래의 소재지는 부의 서쪽이라 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 1709년(숙종 35)에 동래부사

65) 『충렬사지』 권8, 안락서원중수기.

66) 『동래부지』 사묘.

權以鎭이 부의 서쪽 5리 지점에 옮겼는데, 현재 동래구 사직동이 여기에 해당된다.⁶⁷⁾

문묘는 공자 이하 중국 역대의 저명한 유학자와 우리 나라의 유현을 모시는 곳으로 향교 안에 있었다. 성황사는 토지의 수호신(서낭신)을 모시는 사당으로서 증산 밑에 있었다. 여단은 후손이 없어 제사를 모시지 않은 여귀를 모시는 곳으로 부의 동쪽 2리에 있었다. 그리고 절영도신사와 모등변신사는 해신이나 토속신을 모신 것 같으나 그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지 않다.⁶⁸⁾

한편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 때 동래 부산 다대포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순절한 이들을 위하여 충렬사 농주산 전망제단 송공단 정공단 윤공단 의용단 등이 세워지고, 또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왔던 명나라 장수 만세덕 등을 위하여 신무단과 만공단이 세워졌다. 이런 측면은 임진왜란 이후 부산지역에서 성리학 질서의 수립과 강조를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지역보다 많게 건립되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다 장렬히 순국한 동래부사 송상현, 부산첨사 정발, 다대첨사 윤흥신 등의 선열을 모신 사당이다. 1606년 동래읍성 남문 안에 세운 송공사단이 시초이다. 1624년 충렬사에 사액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곳은 사당의 위치로는 적합하지 못하여 165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서원의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때에 송상현의 학행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안락리로 옮기면서 안락서원이라 하였다.⁶⁹⁾

농주산 전망제단이다. 농주산은 동래읍성의 남문 밖에 있었던 조그마한 구릉을 말한다. 산 위에는 북 동 서의 방향으로 각각 단을 설

67) 『동래부지』 사묘.

68) 『동래부지』 사묘.

69) 『충렬사지』 권8, 충렬사강당중수기.

치하여 여기에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첨사 정발 양산군수 조영규 동래교수 노개방을 비롯하여 이들과 동시에 순절한 여러 사람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망 의사들을 모시고 해마다 동래성이 함락된 4월 15일에 제사를 올렸다. 이 전망제단이 세워진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동래 중군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서 현관이 되었으며, 기치를 세워 두고 군악을 연주하였다. 그러나 이 전망 제단은 1742년(영조 18)에 송공단이 세워지자 그리로 옮겨서 모시게 되었다.⁷⁰⁾

의용단은 임진왜란 당시에 경상좌수사 朴泓이 민중들을 적에게 내맡긴 채 성을 버리고 도망하자 진장도 지휘관도 없는 위급한 때를 당하여 오로지 죽음을 맹세하고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정신만으로 충의심을 격발시켜 적과 싸우다가 몸을 바쳐 죽어간 좌수영 소속의 수군 25인을 모시어 그들의 충의와 용기를 기리기 위해 쌓은 단이다. 25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옥계 이희복 정인감 최한연 최송엽 최한손 최수만 최막내 박지수 최말량 김굉량 김달망 박응복 김덕봉 심남 이실정 이은춘 김허룡 정수원 주난금 박림 김종수 이수 김진옥 신복이다.

이들 의용인의 사적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609년(광해군 1)에 동래부사 李安訥이 지방 사민들의 청원에 따라 25인의 사적을 채방하여 「정방록」에 신고 이들의 집 문호에 의용 두 글자를 써 붙인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동래부사 吳翰源은 그들의 후손에게 役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글을 지어 표창하기도 하였다.

그 후 다시 1853년(철종 4)에는 좌수사 張寅植이 지금 수영공원의 서북쪽 기슭에 義勇諸人碑를 세우고 단을 쌓아 의용단이라 하고, 또 재사로서의 의용당을 지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사를 지냈다.

70) 『충렬사지』 권9, 송공단.

제주는 좌수사가 되었으며, 제삿날은 매년 3월과 9월의 丁日이었다.⁷¹⁾ 의용단은 경상좌수영에서 저항한 민중들을 기린 제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국가적 차원의 선양과 성리학 질서 보급이란 측면이 함께 강조된 것이다.

송공단은 1742년(영조 18)에 동래부사 金錫一이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총렬공 송상현이 순절한 정원루의 옛터에 설치한 단으로서 송상현을 비롯하여 순절한 여러 사람을 모신 곳이다. 단은 동 서 남 북으로 각각 1단씩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4단으로 되어 있다. 북단에는 송상현 정발 조영규 노개방, 동단에는 유생 문덕겸, 비장 송봉수, 와 김희수, 겸인 신여로, 서단에는 노개방의 부인, 송상현의 첩 김섬, 정발의 첩 애향, 남단에는 동래성이 함락되던 날 사절한 향리 송백 부민 김삼과 두 촌녀 및 기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망인이 모셔져 있다. 해마다 4월 15일에 제물을 관에서 마련하여 제사를 지냈다.⁷²⁾

그 후 1760년(영조 36)에는 동래부사 홍명한이 사림의 공의에 좇아서 부산첨사 정발을 도와 싸우다가 전사한 부사맹 이정현을 함께 모셨으며, 또 1766년(영조 2)에는 임진왜란 때 다대첨사로서 순절한 윤홍신과 그리고 문덕겸과 함께 죽은 유생 양조한을 다시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 정발 이정현 윤홍신과 애향 및 노개방의 부인은 동래성에서 순절하지 않았으며, 또 송상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송공단에 함께 모시는 것은 뜻이 없다 하여 이들을 모시지 않기로 하였다.⁷³⁾

정공단은 1766년(영조 42)에 당시의 부산첨사 李光國이 임진왜란 때 부산첨사 정발이 순절한 옛 부산진성의 유지에 설치한 단으로서

71) 「義勇壇碑銘」.

72) 『총렬사지』 권9, 송공단.

73) 『총렬사지』 권9, 송공단.

정발과 그를 따라 함께 사절한 여러 사람을 모신 곳이다. 또 이곳에는 정공단 이외에 정발을 돕다가 전사한 부사맹 이정현과 정발의 첩 애향, 성이 함락될 때 싸우다 죽은 여러 사람, 그리고 정발의 충노 용월의 단이 각각 있다. 해마다 부산진성이 함락된 4월 14일에 제사를 올렸다.⁷⁴⁾

윤공단은 임진왜란 때 전사한 다대첨사 윤흥신을 모시기 위하여 그가 순절한 다대진 성내에 세운 단으로 현재 사하구 다대동에 있다. 임진왜란 이후 동래와 부산에서 순절한 이들은 차례로 밝혀져서 포장의 은전을 입었으나 다대진만은 동래읍과 50여 리나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무지하여 당시의 사실을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또 역대의 첨사들이 대개 유식하지 못한 무관들이어서 전대의 사적을 알아내는데 매우 등한했으므로 임진왜란 때의 사적은 거의 매몰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761년(영조 37)에 경상감사 趙曦이 윤흥신의 사적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민을 만한 문헌을 입수하여 정부에 포상을 청함으로써 비로소 윤흥신의 사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다대첨사 李海文은 1765년(영조 41)에 단을 쌓아 윤공단이라 하고, 해마다 4월 15일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제삿날을 4월 15일로 정한 것은 윤흥신이 전사한 날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래 송공단과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⁷⁵⁾

임진동래의총이다. 1731년 동래부사 鄭彦燮이 동래읍성 수축시 남문 터에서 나온 유해를 수습하여 부의 남쪽 삼성대의 서쪽 구릉지에 6층을 만들고, 壬辰戰亡遺骸之塚이라 하였다.⁷⁶⁾ 또 24 功臣碑도 세웠다. 한편 부산포해전 당시 전사한 鄭運의 추모비도 1798년 세워졌

74) 『충렬사지』 권9, 정공단.

75) 『동래부읍지』 권9, 성곽; 『충렬사지』 권3, 尹公遺事.

76) 『동래부읍지』 고적조.

다.⁷⁷⁾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도 있었다.⁷⁸⁾

神武壇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왔던 명나라 장수 경리대중승 萬世德 등을 위해 세운 단이었다. 일찍이 1709년(숙종 35)에 동래부사 權以鎭이 부산진성 안에 있는 자성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만세덕이 1599년(선조 32)에 세운 바 있는 기공비를 발견하고, 비문을 판독한 후에 그가 우리나라에 끼친 무공을 높이 평가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부에 건의하여 사당을 세우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750년(영조 26)에 동래부사 黃景源이 만세덕을 위해 읍성 안에 있는 객사 뒤의 적회정 옛 터에 단을 쌓아 신무단이라 이름하였다. 만세덕과 역시 명나라 장수로 조선에 와서 전공을 세운 바 있는 제독 陳璘 劉綎 麻貴 董一元을 모시고 해마다 한 번씩 날을 받아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으나, 마침내 후에 와서 제사는 폐지되고 말았다.⁷⁹⁾

萬公壇은 1766년(영조 42)에 동래부사 姜必履가 만세덕이 우리나라에 끼친 은공에 보답하고 일본에 대한 복수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의 기공비가 있는 자성(즉 지금의 자성대) 위에 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처음에 강필리는 자성에다 사당을 세우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이 일은 중국에 관계되는 것이라 가벼이 다룰 수 없다고 하여 허용되지 않았다. 또 만공단을 쌓은 후에도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허가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⁸⁰⁾

특히 신무단과 만공단의 건립은 임진왜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한 성리학적 질서의 보급이란 차원을 넘어서 승명의리 사상의 강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연장시켜 나갈려는 서인 세력의 의도와 맞물려 진행되어 나갔다.

77) 「忠臣鄭運公殉義碑」; 『충렬사지』 권11, 몰운대.

78) 『동래향청고왕록』 임진전망장사홀제.

79) 『충렬사지』 부록 1, 만공단 사적.

80) 『충렬사지』 부록 1, 만공단 사적.

넷째, 정려의 보급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례의 확립이 이루어지면서 성리학적 질서는 향촌사회에까지 보급되어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 민들에게 의리명분에 입각한 충효의 이념이 정착되어 나갔다. 부산지역에서는 조선전기에 성종대에 金得仁이 여묘 3년으로 旌門을 세우고 관직을 제수받았으며, 읍리 玉石根의 아들 玉宗孫과 만호 金寶文의 딸이 효도를 잘 해 旌門과 復戶를 받은 사실이 있다.⁸¹⁾ 아울러 부모의 전염병 간병을 잘하여 표창된 경우도 있었다.⁸²⁾

이후 임진왜란을 당하여 일본군에 대항하다가 순절하는 충신과 열사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절사의 양씨 3형제를 들 수 있다. 한편 송상현의 첩과 동래 부인 김섬과 애향에게도 현판이 내렸다. 또 국가를 위한 정성을 고려하여 金禹鼎에게 정려가 내려지도록 청원되기도 하였으며,⁸³⁾ 남편을 잘 돌본 열녀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⁸⁴⁾

구체적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면의 석대리 里任의 文報에 제3통 3호의 교생 千聖泰는 사람됨도 단정하고 효심이 순수 지극하며, 부모의 간병과 시묘살이를 표창하고 있다.⁸⁵⁾ 이런 사례들은 임진왜란 이후 보다 강조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부산지역에서도 많은 사례가 발견된다.

2. 일본인의 거주와 문제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정상화되었지만 일본인의 왜관 출입을 엄격

81) 『동래부지』 효자효녀.

82) 『동래부지』 효자효녀.

83) 열녀김섬사당편액과 두 열녀·두 촌녀 사당편액, 부산박물관 소장.

84) 『동래부지』 열녀. 한편 조선시기의 정포와 정려에 대해서는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85) 『석대천씨5대6효고문서』 「동면상단풍약서목」 임신 삼월 초10일.

하게 단속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왜관 밖으로 출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살폈다. 한 예를 들면 왜관에 거류하는 왜인들이 명절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히 물가에다 천막을 치고 멋대로 놀았는데, 부산첨사 趙安邦과 역관 李彦瑞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조금도 금하지 않았다고⁸⁶⁾ 한다. 뒷날의 많은 폐단을 이에 의거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어수선하자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성리학 질서의 강조를 통해서 국가체제를 재수립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문제였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성리학적 질서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기강의 해이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역은 범죄자들의 도망처였다. 한 예로 福只是 본래 소를 도살하는 자였다. 어려서 부모가 모두 죽고 도성에서 결식하다가 新門 안 朴龍의 집을 주인으로 삼고 소를 도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일찍이 박룡의 말을 가지고 나갔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핑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박룡이 질책하자 드디어 도망갔는데, 도중에 童女 春伊와 童男 日上이란 자를 피여 동래로 달아나서 왜관 밖 張應天의 집에 묵게 되었다. 그는 황간 永同 사람으로 倭劍을 사고자 하였는데, 계집아이를 팔아서 검을 사고자 하였다. 그런데 복기는 잡혀서 추문을 당하자 처음에는 尹明吉, 朴應天, 朴春男이라 하다가 끝내는 朴致毅라 하였다. 그런데 박치의란 자는 徐羊甲·沈友英의 옥사 때에 도망한 자로 당시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려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박치의의 처형제 壬·任章 및 아는 사람 漢守·愛守·朴應犀 등이 박치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연루된 자는 모두 공초가 있었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일을 조작하여 도내를 소란하게 하고 무고한 자를 옥에다 가두는 일이 임

86) 『광해군일기』 권64, 5년 3월 16일.

진왜란 직후에 있었다.⁸⁷⁾ 이 일은 왜관의 치안이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대표적인 이러한 혼란은 국가 기강의 해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왜관에서는 우리나라가 잘못하여 법제가 엄하지 않으므로 장사치들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여 중국의 물건이 왜관에 낭자하였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서 천하가 이를 알고 있으며, 국가가 왜와 결혼했다고까지 말하는 지경이었다. 이에 그 모욕을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걱정하는 형편이었다.⁸⁸⁾ 당시 부산지역의 상황이 일본인의 거주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풍기와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때문에 移配시키는 죄인을 동래·부산과 가까운 곳에는 두지 않도록 국가에서 초처하였다. 그리고 전후로 定配시킨 죄인들도 왜관과 가까운 곳에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동래와 2일정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른 곳으로 이배시켰다.⁸⁹⁾ 조선왕조가 부산지역의 기강문제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보다 더 가장 심각했던 것은 왜관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풍기 문제였다. 이 문제는 성리학적 질서를 강조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거리였으며,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이 부산에 많이 주둔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의 무리들은 우리 땅에 한번 들어오자 곧 응거할 뜻을 가지고 부녀자를 잡아서 처첩을 삼고 장정을 잡아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며, 허다한 여염집은 다 불태워 버리고 공사의

87) 『광해군일기』 권87, 7년 2월 2일.

88) 『인조실록』 권17, 5년 12월 25일.

89) 『인조실록』 권21, 7년 12월 6일.

축적물은 모두 자기의 소유로 돌려서 기운은 사방에 가득하고 피는 천리에 흐리니 생민의 화를 차마 말할 수 있으라고⁹⁰⁾ 하였다. 부산 지역은 장기적으로 점령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록이 전한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부산지역의 사람 중에서 일본인과 왕래하고 혹은 결혼한 자 적지 않았는데, 이를 倭戶나 麗戶라고 칭하였다고 하였다.⁹¹⁾

그런데 조선후기 왜관에는 일본 여인들의 출입이 일절 금지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몰래 왜관의 담장을 뛰어 넘고 부락에 나가서 부녀자를 능욕하기도 하고, 혹은 수문과 설문의 문지기나 군관들을 매수하여 이들로 하여금 부산지역의 여인들을 유인해 오도록 하여 왜관 안에서 간음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그러므로 부산 사람 중에서는 倭産이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⁹²⁾ 그러나 정부에서는 관련된 조선인만 일방적으로 적발하여 처단했을 뿐 일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교간사건이 일어나자,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응징하여 효수형에 처했다.⁹³⁾ 한 예로 초량촌의 여자 徐一月이 같은 마을에 사는 高甲山 등의 피임에 빠져서 왜관에 몰래 들어가 일본인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고갑산은 주범으로 지목되어 왜관 문 앞에서 효시형을 당했고, 서일월과 거기에 관련된 자들은 각각 유배된 일이 있었다.⁹⁴⁾ 또 동래 사람 朴善同이 왜인의

90) 李魯, 『용사일기』.

91) 『鍋島家記』; 『충무공전서』 「부산파왜병장」에서는 왜인이 지어 사는 집이 즐비하다고 하였다.

92) 『승정원일기』 권21, 7년 12월 6일.

93) 손승철, 「왜인자대등록을 통하여 본 왜관」 『항도부산』 10, 1993. 여기에 보면 조선후기에 모두 9회에 걸친 교간사건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교간 사건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94) 『현종실록』 권4, 1년 5월 28일

머물을 받고 여인을 관에 유인해 들인 뒤 몰래 통간하게 하였는데, 그 일이 드러나자 박선동과 여인을 왜관 문 밖에 효시하고, 기타 왜인들과 회동하여 술 마신 여인 및 왕래하며 교통한 상놈들도 遠地에 나누어 유배하였다.⁹⁵⁾

한편 왜관의 왜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여염집에 출입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간음까지 하였지만, 풍속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조그만 이익을 탐내 도리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지경이었다.⁹⁶⁾ 이후에도 이런 사례는 계속 되었으며, 이들은 효시되었다. 즉 동래의 館倭와 간통한 여인 愛今 등 3인과 유인하여 몰래 왜관에 데려간 權祥·徐富祥 등을 왜관 문 밖에서 梟示하였다.⁹⁷⁾ 그러나 교간과 간음사건은 근본적인 금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 마침 1707년(숙종 33)에 초량 마을의 한 여인이 일본인과 더불어 교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왜관 측에 엄중한 항의를 하는 동시에 범죄 일본인을 조선인과 같이 극형으로 다스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왜관 측에서는 좀처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한 고집만을 되풀이하여 오다가 마침내 1711년(숙종 37)에 통신사 趙泰億과 쓰시마 도주 사이에 이른바 潛姦律의 제정을 골자로 하는 신묘약조가 체결됨으로써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⁹⁸⁾ 즉 이에 의하면 첫째 왜관 안의 일본인이 왜관을 뛰쳐나와 강간한 자는 극형에 처하고, 둘째 화간 및 강간 미수자는 영원히 귀양 보내며, 셋째 여인이 스스로 왜관에 들어가서 간음한 자는 차울로써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의 금제가 자못 엄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 『현종실록』 권4, 2년 5월 28일; 『현종개수실록』 권5, 2년 5월 29일.

96) 『현종개수실록』 권16, 7년 12월 15일.

97) 『숙종실록』 권22, 16년 10월 6일.

98) 『숙종실록』 권51, 38년 3월 5일.

하고 풍기 사범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이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조선왕조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 풍기 사범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설문에서 수문에 이르는 10리 사이에 司僕侍의 목장과 전답이 있어 농민들의 출입이 빈번했던 것 외에 일본인들이 금표 안을 마음대로 내왕하였기 때문에 피차가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1787년(정조 11) 2월에는 영의정 金致仁의 건의에 따라 중국과 교섭이 잦은 의주의 예에 준하여 설문과 수문 사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절 경작하지 못하도록 조처하였다.⁹⁹⁾ 그래도 교간은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인 거주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임진왜란 전후 부산지역의 사회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임진왜란 이후 향촌지배체제의 확립은 사족이나 향반들의 상층부의 입장에서는 지배체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향안의 작성과 향촌지배기구였던 향교, 서원, 향청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부산지역에서는 뚜렷한 사족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반들이 향민들을 지배하였다. 부산지역에서는 남평문씨, 경주김씨, 죽산박씨, 동래정씨, 여산송씨 등 다섯 성씨가 중심이 되어 향촌사회를 주도하였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99) 『정조실록』 권23, 11년 2월 10일.

임진왜란 이후 향교의 이전과 중수, 안락서원의 건립, 향회의 구성, 향안의 작성을 통해서 향반으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갔다.

한편 재지사족들은 하층부인 민의 통제를 위해서는 향약의 시행이 필요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의 향약은 수령향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부산지역의 사하면과 남천면의 향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향약은 시행 시기가 효종 연간이었으며, 성격은 동약으로서, 수령향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향약의 조항에서는 충효와 상부상조 및 환난상휼이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으로 와해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향교와 서원의 교육을 강조하고, 제단과 정려의 건립을 통하여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화해 나갔다. 부산지역에서는 동래향교가 중건되었으며, 안락서원이 건립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전사한 인물들을 기리는 충렬사와 좌수영²⁵ 의용단의 건립 등이 있었다. 또 선무단과 만공단 등 명나라 군사를 위한 제단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충효를 표창하는 정려의 건립이 있었다. 이런 모습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리학 질서를 수립·강조하는 모습과 같은 추이었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일본이 거주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것은 유교적 가치관과 기강의 해이 및 교간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의 시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한 풍기의 단속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진행되었다.